



2021년 8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25(수) 13시 3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8. 25(금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 에너지전환정책과
담당과장	권혁우 과장(044-203-5650) 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	담당자	정완호 사무관(044-203-5651) 이연 사무관(044-203-5125)

한국과 콜롬비아간 무역·투자 증진, 재생에너지,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-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계기, 한-콜롬비아 무역·투자포럼 및 양국 간 에너지장관 회담 개최 -

1. 한-콜롬비아 무역·투자 포럼 (8.25 13:30)

-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.25일(수) 한-콜롬비아 무역·투자 포럼에 참석하였다.
- 이번 행사는 국민 초청 경제인 행사로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계기로 개최되었다.
- 콜롬비아에서는 두케 대통령, 롬바나 상공관광부 장관, 니콜라스 우리베 보고타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부와 기업인 19명, 한국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정부와 기업인 30명이 참석하였다.

한-콜롬비아 무역·투자 포럼 개요

- 일시·장소 : '21.8.25(수) 13:30 /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
- 주관 : (한) 대한상공회의소, (콜) 주한콜롬비아대사관
- 참석자 : (한) 산업부장관, 경제5단체 부회장, CJ그룹·(주)LG·포스코인터내셔널·코리안리·삼성엔지니어링·셀트리온 기업인 등 29명
(콜) 콜롬비아 대통령, 상공관광부·광물에너지부·농업부·문화부장관 등 정부인사, 보고타상의회장, 경제인연합회부회장, 주한대사, 기업인 등 19명
- 행사내용 : 한-콜 협력유망 산업 및 진출방안, 콜롬비아 투자유치정책 등 공유 및 '한-콜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MOU'(대한상의-보고타상의) 서명

- 콜롬비아 대통령의 기조연설 및 산업부 장관과 보고타상공회의소 회장 축사,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주한콜롬비아 대사의 개회사 이후, 한-콜롬비아 협력 유망 산업 및 진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- 본행사를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와 보고타상공회의소 간 ‘한-콜 경제 협력위원회 설립 MOU’ 서명식을 갖고, 경제협력위원회 설립을 통해 정기적인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투자 설명회 개최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- 문승욱 장관은 축사에서 2016년에 발효된 한-콜롬비아 FTA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,
 - 한-콜롬비아 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으로 ①한-콜롬비아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 확대, ②인공지능, 청정에너지, 미래자동차 등 미래첨단 분야로의 협력, ③양국 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밀한 보건협력으로 경제활성화와 무역·투자 확대·발전을 제시하였다.

2. 한-콜롬비아 에너지장관 회담 (8.25 16:00)

-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(8.25) 오후 디에고 메사 푸요 (Diego Mesa Puyo)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장관과 회담(장소: 포시즌스호텔 서울)을 진행하고, 한-콜롬비아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먼저 문 장관은 한국정부는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,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,
 - 이에 더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작년 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, 금년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, NDC 추가 상향과 함께 산업, 수송,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.

- 메사 장관은 콜롬비아 정부 역시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태양광·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,
 - 아울러 올 하반기 중 △수소 생산, △수소 모빌리티 및 충전인프라 확충, △기술개발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국가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.

- 문 장관은 수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대안이자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서 한국 정부 역시 수소 로드맵 발표(19.1월),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(20.2월)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하면서,
 - 콜롬비아의 수소 생산 여건, 한국의 수소활용 분야 기술력 및 보급 경험 등 양국의 강점을 살린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, 추진해나가자고 덧붙였다.

- 아울러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제공조와 협력이 필수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, 향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정완호 사무관(☎ 044-203-5651), 에너지전환정책과 이연 사무관(☎ 044-203-51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